



연극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향하여

《연극의 사회학, 희곡의 해석학》
펴낸 김성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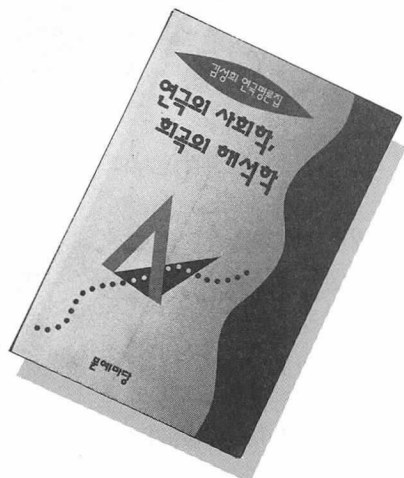
공연됐습니다. 또 90년대 들어서면서 연극은 사회전반의 탈이념적 상황과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에 영향을 받아 형식의 해체와 다중적 표현방법의 실험, 그리고 신세대 감각에 호소하려는 영상이미지 위주의 공연문법이 뚜렷한 특색으로 나타났죠.”

김성희 교수가 우려하는 건 바로 90년대 이후의 연극상황이다. 일시적인 관객동원에 열을 올려 스펙터클한 영상이미지와 가벼움을 내세운 불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예술적 감흥이 이뤄지려면 대사가 관객을 울리던 시대로 회귀해야 합니다. 연극 본래의 매력을 되찾아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야만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적인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연극이란 무엇인가》(가제)를 출간할 예정인 김교수는 “언제까지나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한다.

—배은희 기자



좁디좁은 소극장을 즐겨 찾는 사람들. 무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저건 내 애긴데...”하며 훌쩍거리기도 하고, 배우들의 익살에 배꼽을 잡기도 한다. 김성희 교수(40, 한양여전 문예창작과)는 “잘 짜여진 연극 한 편이 내뿜는 카타르시스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고 말한다.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는지 열성적으로 찾아다니며 연극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는 김교수는, 최근 《연극의 사회학, 희곡의 해석학》(문예마당)을 펴냈다.

이 책은 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상연된 작품들의 공연평과 우리나라 연극 현실을 분석한 논문, 그리고 희곡작가의 작품세계와 및 작가론을 싣고 있다. 특히 100여편을 훨씬 웃도는 공연평 모음은 어떤 시각으로 연극을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공연된 작품들을 주로 관객의 입장에서 서서 연출, 배우, 원작, 이 세가지의 아귀가 잘 맞았는지 검토한 평론입니다. 일반인들엔 연극을 볼 계기를 마련해주고, 연극인들엔 성찰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논문은 80년대 이후 우리 연극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어 그동안 쏙 진행된 연극의 특색 및 구조적인 문제들까지도 속 시원히 풀어낸다.

“80년대 후반기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시대현실에 대한 발언이 첨예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마당극, 정치극, 정치풍자극, 여성연극이 많이



과거 아닌 현실로 존재하는 역사

《서울시내 일제유산 답사기》
펴낸 정운현씨

정운현씨는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편중되게 밝은 면만 조명해온 반쪽짜리 역사였다고 강조한다. 역사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병존하게 마련인데, 우리 경우는 어두운 측면이 지나치게 외면당해왔으며 그 때문에 역사가 균형을 잃고 왜곡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맥의 대부분이 친일 계열인 까닭에 그 어두운 측면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던 것이 그 이유다.

90년대 들어 젊은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소수의 움직임에 불과한 형편이다.

“역사를 깊이 알면 알수록 기존 역사 교육에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식들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갈 때면 일제가 남긴 건물들을 손가락질하며 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하는 정운현씨는, 내후년쯤 우리나라 6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 일제유산 답사기》를 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동림 기자

“역사는 책장 속에서 존재하는 과거사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산재해 있는 일제시대의 유산을 둘러보고 그것들이 세워진 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을 엮어 책으로 펴낸 정운현씨(36)는 역사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일제시대는 흔히 역사교과서에서나 접할 수 있는 옛날이야기쯤으로 기억에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 치욕스런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만 나가보아도, 위쪽으로는 조선총독부건물(현 중앙박물관), 아래쪽으로는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청사), 경성부 청사(현 서울시청), 그리고 그 길로 조금 더 내려가서 경성역(현 서울역) 등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치욕의 역사를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산이 지금처럼 훼손된 것이 일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성산(聖山)으로 여겨졌던 남산에 일제는 자기네들 사당을 지었습니다.”

일제는 경복궁이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신사를 지었는데, 약 3만평인 경복궁보다 네 배 가량이나 큰 규모였다. 그 바람에 광대한 면적이 깎여나갔고 산 자체가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들은 의외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 무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식층에 있습니다.”





현직 여교사의 '요즘 아이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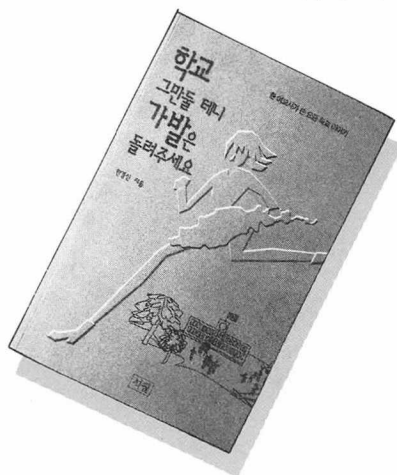
《학교 그만둘테니...》
펴낸 한경신씨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린다. 그리고 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외국에 나가서 본 그곳 학생들의 생활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되짚어보기도 하다. 또 동료교사들의 경험과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아이 문제에 이르면 이성을 잃고 욕심장이가 되어버리는 '팔쥐엄마'의 모습을 들추어내기도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의 가방을 뒤지고 일기장이나 수첩을 훑쳐보고 아이들을 비난하고 때리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에게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의식이나 자존심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스스로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그는 당당하고 합리적인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확실적인 목표를 강요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겠냐고 강조한다. 친구같은 부모가 되는 길은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할까를 늘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그는 단언한다.

— 박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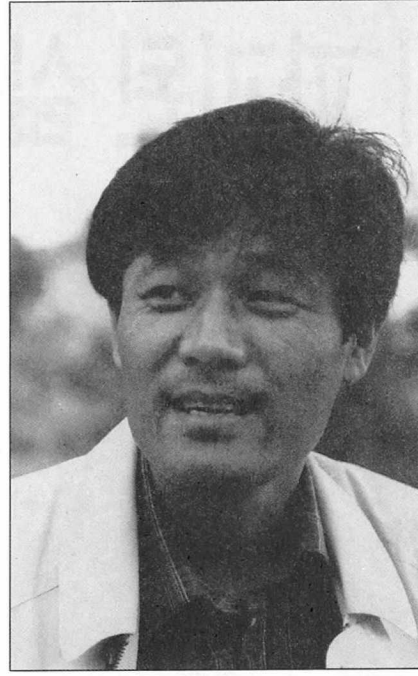
“학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내 자식이지만 요새 애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집밖에 나가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라거나 ‘우리에는 도대체 집에 오면 말이 없어요. 어쩌다 한마디 하길래 반가워서 대꾸하면 금방 화를 내는 통에 말을 붙일 수가 있어야지요’ 하는 식의 말입니다.”

한경신(40, 영등포여고 교사)씨가 최근 펴낸 《학교 그만둘테니 가발은 돌려주세요》(석필)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에게 요즘 심대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에 화내고 웃는지를 알려주는 현장 보고서다.

올해로 교사 경력 17년째인 그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선 각기 다른 학교의 6학급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있다.

암호문 같은 뽀뽀번호로 연락을 하고 계를 부어 맛있는 것도 사먹고 비싼 옷을 사입기도 하고 여행도 가는 아이들, 명함도 만들어 서로 나누고, 컴퓨터 채팅을 통해 이성 친구를 사귀고, 갈곳이 없어 카페나 노래방, 비디오방을 전전하기도 하는 것이 요즘 심대들의 모습. 어른들의 물이해와 잔소리가 싫어 비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심대들의 문화 외에도 이 책에는 ‘엄마 이런 것 좀 고쳐주세요’ ‘아빠, 너무 합니다’ ‘이럴 때 가출하고 싶다’는 외침들도 실려 있다.

아이들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그는 유난히 엄했던 아버지 밑에서 주눅들며 지냈던 자신의 청소년기와 재수시절, 교사생활을 하며 스쳐갔던



현대인의 일상공간 형상화

《비디오를 보는 남자》
펴낸 임영태씨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이 소설의 또하나의 특징은 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혼한 여자’가 아닌 ‘이혼한 남자’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주인공의 일상을 통해 무기력하고 왜소해지는 남성상을 우회적으로 묘사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자기 자신과 독자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4권의 책을 묶었지만 이번처럼 과정에 몰입했던 소설은 처음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한 남자의 삶을 쫓아가면서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해 보이는 주인공의 삶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 허연 기자

“비디오대여점은 24시간 편의점, 노래방 등과 함께 90년대 이후 동시대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입니다. 예전엔 서점이나 만화가게 등이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주요 매개체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 중 많은 부분을 비디오대여점이 하고 있습니다.”

1992년 문화일보 문예공모에 중편소설이 당선된 이후 94년에는 장편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로 제18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가 임영태씨(38)는, 이혼을 한 후 비디오 대여점을 하며 혼자 살아가는 한 남자의 내면풍경을 그린 이번 소설을 통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입해 들어온 비디오대여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간사를 펼쳐보이고 싶었다”고 창작의도를 밝힌다.

그의 이번 소설은 현대인들의 속성을 실존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여가시간에 비디오를 보면서 정서나 문화적인 욕구의 일정부분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혼자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30대 후반의 주인공과 비디오 가게에 드나드는 여러 계층의 인물들을 통해 뚜렷한 욕망이나 환희에 찬 미래에 대한 기대없이 실존적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현대인의 이면을 분석하고 있는 이 작품은 신념과 명분이 퇴색하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담하게 추적하고 있다.

작가는 실제로 전업작가로 나섰던 초기에 잠시동안 비디오대여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적막이 흐르는 오후에 비디오 대여점 소파에 앉아 누군가의 편지를 읽는 주인공의 모습’은

